

거짓 답변으로 낙농가를 우롱말라 !

- 낙농진흥회는 농가분열을 책동한 관련책임자를 엄벌하고 공개사과하라! -

1 지난 12월 22일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일방적 직결추진과정에서 급조된 낙농조합 총량제운영지침의 제정경위 등을 귀회에 정중히 물었습니다. 이는 농림부와 특히 낙농진흥회가 앞장서 지난 12월 16일부터 지역별 직결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입수한 바로는 우리 낙농가와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바로미터' 이기 때문입니다.

2 하지만 귀회로부터 온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민원회신' 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확정된 사실도 없고 결정된 사안도 없으니 일반에게 공표할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라면서 오히려 경고와 협박에 가까운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월간 낙농의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에 대한 폄하기사에 대해서는 '사랑의 고언' 으로 받아들이 겠다니 소도 웃을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정중하지 못한 태도임을 우선 밝혀드립니다.

3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귀회의 주장대로 비록 안이라고 하지만 유보가 되지 않았더라면 12월 16일부터 적용 · 추진되었을 사안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태도라면 낙발협 논의를 뒤로하고 지역별 직결체제 전환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그날의 사건(?)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 또한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무엇보다 낙발협에서 논의중인 집유체제 개편 문제를 비롯하여 근본적인 중장기 낙농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나 농가, 유업체 관련기관 모두가 합심하고 그 바탕위에서 서로간의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에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금일 개최된 회의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공개질의에서 밝힌 바대로 우리가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귀회에 마지막으로 신뢰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고자 다음과 같이 엄중 요구합니다.

첫째, 낙농진흥회는 낙발협 논의를 통해 정부 낙농대책 확정전까지 일방적 직결전환 추진 등으로 농가분열 희책을 중지할 것.

둘째, 낙농진흥회는 월간낙농의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폄하기사에 대해 공개사과할 것.

셋째, 낙농진흥회는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

넷째, 위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월간낙농, 전문지에 공개 게재할 것.

5 이러한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1월 25일(수)까지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우리의 진정성을 계속적으로 무시한다면 생존권 보호와 올바른 낙농대책 수립을 위해 어떠한 실행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2006. 1. 18 (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장